

손병석 차관, “건설 스타트업, 적극 지원할 것”

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개소식 방문, 간담회 통해 현장목소리 경청

□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27일(목), 건설기술연구원 ‘스마트 건설 지원센터’ 개소식에 참석하고 센터에 입주한 혁신스타트업 대표자 및 창업전문 컨설턴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.

□ ‘스마트 건설기술’은 전통 건설기술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기술*로 건설 생산성을 혁신할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.

* ICT, 빅데이터, BIM, 드론, 로봇,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 등을 융합한 기술
(예) 3차원 설계 및 가상시공, 자동 건설장비, IoT 기반 현장관리 등

○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, 관련 기술의 개발·보급,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- 특히, 지원센터는 건설기술연구원이 보유한 전문인력·인프라의 장점을 살려 기술 컨설팅, 시제품 제작·검증 등 건설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특화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○ 아울러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.

□ 손 차관은 개소식에 참석하여 “우리 건설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기술을 통한 혁신이 가장 중요”하다며,

○ “3D 업종, 전통산업으로 여겨지는 건설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”라고 평가했다.

- “스마트건설 지원센터가 우리 건설산업 스마트화를 이끌고 효과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, 창업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중소기업벤처부와도 적극 협업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이어서 손 차관은 지원센터에 새롭게 입주한 8개 스타트업 대표자 및 창업 전문가들과 1시간 가량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“검증된 실적과 가격경쟁력을 중시하는 우리 건설시장은 창업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”이라며 스타트업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였고,
 - “스타트업이 개발한 첨단 기술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고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의 역할”이라며,
 - “앞으로 국토부도 건설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 발주청이 창의적인 스마트 건설기술을 요구하도록 하여 기업이 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, 나아가 스스로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2018. 9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